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7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시상식 개최

대상에 현정근 단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수상 영예

기사입력 2022.12.22 16:55:05 | 최종수정 2022.12.22 16:55:05 | 김아름 기자 | [ar-ks486@bokuenews.com](mailto:ar-ks486@boku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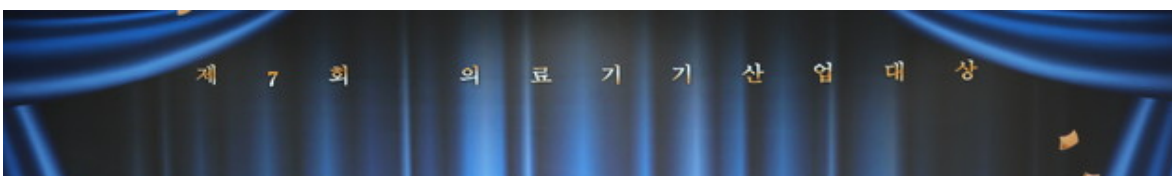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지난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제7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의료기기산업대상은 매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의료기기 개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인·연구자, 단체에게 상을 수여해왔다.

올해는 △'대상(大賞)'에 현정근 단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혁신기술상'에 한세광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산업진흥상'에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大賞)' 수상자인 현정근 교수는 신경절단과 같은 심각한 신경 손상 후 신경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구조체만으로 신경 재생 기능을 부여한 새로운 인공 신경 도관을 개발했다. 이는 말초신경 재생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신경 재생용 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신경 도관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이바지했다.





'산업진흥상'에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국내외 특허와 기술이전, 인허가 지원을 통해 충북 단지내 기업들의 의료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전시회 불모지인 대구지역에 국제의료기기 전시회(KOAMEX)를 론칭하고, 지역 의료제품의 국내외 홍보 협력 강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및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설립 등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기반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유철욱 협회장은 "협회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의료인과 연구자가 자긍심을 갖고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의료기기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주축 산업으로 도약할 토대를 다져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의료인, 연구자,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국민 보건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 ([ar-ks486@bokuennews.com](mailto:ar-ks486@bokuennews.com))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